

동양 철학에서의 소리의 속성과 감성 유형*

— 중국의 악론과 조선의 천기론을 중심으로

Attributes of sound and emotional type in the Eastern philosophy

— Focused on Chinese Akron(樂論) and Chosun Chongiron(天機論)

길태숙**†

Taesuk Kihl**†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Yonsei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i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attributes of sound and emotion resided in traditional Eastern thought by looking into acoustic theories such as Sunguarakron (聲有哀樂論) in Akgi(樂記), Sungmuaerakron(聲無哀樂論) of Haegang(嵇康) and Akhakgebun(樂學軌範), Chongiron(天機論) in Choson(朝鮮) dynasty. Six types of emotions, namely sadness, pleasure, happiness, anger, respect, and, affection (哀心, 樂心, 喜心, 怒心, 敬心, 愛心) which is related with sounds was closely reviewed through Akgi(樂記). Also attributes of sounds such as loudness, sharpness, pitch, roughness, fluctuation strength and pleasantness was corresponded with plain & complicated(單複), pitch(高埤), good & bad(善惡) slow & fast(舒疾), loud & quiet(猛靜) respectively. In addition to this, this paper is narrowed down that the basic ideas about sound and emotions of Choson(朝鮮) confucian scholar was based on theory of music and rhythm on Akgi(樂記). Furthermore, the relationship between expressed sound and emotions which was revealed in Chongiron(天機論) has been examined. Finally, various applied research and studies will be promoted through this study, because this study will provide foundation which supports sounds and emotions of Eastern.

Keywords : sound, types of emotion, Akgi(樂記), Sunguarak(聲有哀樂), Sungmuaerak(聲無哀樂), Akhakgebun(樂學軌範), Chongi(天機)

요약

본 논문에서는 『악기』의 성유애락론과 이를 비판적으로 논의한 혜강의 성무애락론, 조선시대의 『악학궤범』과 천기론을 주장한 일련의 학자들의 이론을 통해서 한국인 혹은 동양인의 사고에 전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소리와 감성의 속성 및 그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를 통해서 는 애심, 락심, 희심, 노심, 경심, 애심(哀心, 樂心, 喜心, 怒心, 敬心, 愛心)의 여섯 가지 감성과 관련된 각각의 소리에 대해 고찰하였다. 소리는 객관적 외물일 뿐이지 마음의 형이 아니라고 주장한 혜강의 논의를 통해서 는 그가 맹정(猛靜), 단복(單複), 서질(舒疾), 고비(高埤), 선악(善惡)으로 규정한 소리의 속성이 크기(loudness), 세밀성(sharpness), 피치(pitch), 거칠기(roughness), 요동강도(fluctuation strength), 쾌적감(pleasantness) 등과 대응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악학궤범』을

* 본 논문은 연세대학교 미래유망분야 지원사업의 융합감성과학 연구단(2009-1-0212)의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됨.

† 교신저자 : 길태숙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연세대학교 융합감성과학 연구단)

E-mail : tsroad@gmail.com

TEL : 010-3882-7031

통해서는 당시 조선 유학자들의 소리와 감성에 대한 사고가 『악기』를 기본으로 한 유가적 악론과 음률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확인하고, 천기론을 통해서는 천기를 통해 발현된 소리와 감성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동양인의 의식에 내재된 소리와 감성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한국인 혹은 동양인의 감성에 기반한 소리 유형 분석의 기초가 됨으로써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소리, 감성 유형, 성유애락, 성무애락, 악기, 악학궤범, 천기

1. 서론

인간 감성에 대한 연구는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에서 비롯하여 감성을 인간의 내적이고 심리적인 특성으로 파악하여 접근하거나, 생리적 특질로 규명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본질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공학, 경제학, 사회학 분야의 실용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졌다. 현재 감성은 학문 제반 분야의 화두로써 다양한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 연구되고 있으며, 특히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선진 기술의 개인화 서비스를 위한 한 방향으로써 주목되고 있다.

감성의 큰 속성 중의 하나는 ‘불명확성’이다(이태일, 2007). 감성은 동일한 자극이나 대상에 대해서도 개인 마다 달리 표출되며,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도 변화한다(이구형, 1998). 감성은 개인의 심리상태나 체력 조건 이외에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역사 등의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의미를 규정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감성은 그 불명확한 속성 때문에 연구 대상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러한 불명확한 속성이 인간과 개인의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연구 목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외부 자극에 의해 발현되는 감성은 그 자체로도 의미있는 연구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감성적 작용과 더불어 두뇌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처리와 의사결정, 행동, 몸에 미치는 영향 등 외부자극으로 인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연구 역시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다. 더욱이 감성연구는 이러한 감성 행위와 작용을 인공물 혹은 사이버스페이스의 가상 캐릭터에 부여하는 것까지 포괄한다. 때문에 감성에 대한 연구는 철학, 심리학, 생리학, 사회학, 경영학, 공학, 예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에 바탕을 둔 정성적, 정량적 연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감성 연구의 한 지점으로써 소리에 대한 한국인의 감성 반응에 주목하여 그 역사적 철학적 배경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리와 감성의 관계를 통해서 국가 통치의 기본을 진지하게 논의한 『악기』의 성유애락론과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한 혜강의 성무애락론을 살펴본 후, 악기를 바탕으로 하여 전개된 조선시대의 『악학궤범』과 천기론을 주장한 일련의 학자들의 논의를 고찰할 것이다. 서양 학자들의 감성 분류 체계에서 벗어나 한국인 혹은 동양인의 사고에 포함되어 있는 소리와 감성의 관계에 대한 의식의 일면을 파악하고 감성과 소리의 관계 고리를 읽어냄으로써 본 논문은 이후 한국인 혹은 동양인의 감성에 기반한 소리 유형 분석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소리에 감성이 있는가?

2.1. 『악기(樂記)』의 성유애락(聲有哀樂) 관점에서의 소리와 감성

『악기』에서 주목할 만한 소리와 감성에 대한 견해는 소리가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관점이다. 『악기』 제1편 <악본(樂本)>에서는 성(聲)과 음(音)과 악(樂)을 정의하면서 소리는 사람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비롯한 것이라고 하였다.

대개 음의 발생은 인심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인심의 움직임은 외물이 그렇게 만들어서이다. 인심이 외물에 느껴 움직이면 성으로 드러나고 성이 서로 호응하여 변화를 낳으며, 그 변화가 문장을 이루면 그것을 음이라 한다. 음을 나란히 안배하여 악기로 연주하고 간과 척, 우와 모를 쥐고 춤추면 그것을 악이라 한다.1)

1) 凡音之起 由人心生也 人心之動 物使之然也 感於物而動 故形於聲 聲相應 故生變 變成方 謂之音 比音而樂之 及干戚羽旄 謂之樂

(김승룡, 2002)

외물이 인심(人心)을 자극하고 인심이 외물에 의해 움직이면 소리(聲)로써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리는 사람의 마음이 형(形)을 가지고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음은 소리의 변화에 의해 생겨나고, 다시 악은 음이 안배되고 적합한 도구를 들고 춤을 추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외물 → 인심(人心) → 소리(聲) → 음(音) → 악(樂)’으로의 호응 및 변화 관계를 통해 성, 음, 악을 정의함으로써 ‘소리가 인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양체(形)이다’라는 소리와 인심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소리가 인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다’라는 주장에서 더 나아가 『악기』 제5편 <악언(樂言)>에서는 소리가 일정한 감성 혹은 정(情)을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하고 있다(김승룡, 2002).

대저 사람은 혈기와 심지의 본성은 있어도 서럽고 즐겁고 기쁘고 성냄에 항상됨이 없어서 느낌에 응해 외물에 일으켜져 움직인 뒤에 심술(心術)이 나타난다. 섬세하며 미묘하고 불안 초조하며 쉽게 쇠약해지는 음이 지어지면 사람은 그리워 시름겨워한다. 남김없이 터지며 화해롭고 성글며, 평탄하고 다채롭게 꾸미고, 가락이 간략한 음이 지어지면 사람은 편안하고 즐거워한다. 거칠며 사납고 힘차게 시작해서 떨치며 끝맺고 넓고 크게 성내는 음이 지어지면 사람은 굳세고 강인해진다. 반듯하며 곧바로고 깨끗하며 올바르게 장중하며 진실한 음이 지어지면 사람은 정숙하고 공경한다. 넉넉하고 너그럽고 원만하고 윤기가 돌며 순응하여 이루어지고 화해롭게 움직이는 음이 지어지면 사람은 인자하고 사랑한다. 멋대로 흘러 치우치고 어그러져 산란하여 경조 부박하고 분수를 지나치는 음이 지어지면 사람은 음일하고 어지럽다.2)

‘소리’라는 외물의 자극을 통해 마음의 상태[心術] 혹은 감성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항상성이 없어서 외부 자극에 의해 그 감성이 달라지기 마련인데 소리 자극의 종류에 따라 형성되는 마음의 형이 규정된다는 이론이다.

그런데 <악본>에서의 설명을 적용한다면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소리로 나타나기 마련인데[形於聲] 이

때 소리는 마음의 상태를 형상화한 소리가 된다. 마음의 상태를 형상화한 소리를 "A"라 하면 이 "A"는 다른 사람에게는 외물이기 때문에 그에게 감통해 들어가 같은 마음의 상태 "A"를 형성한다(박낙규, 1992). 소리와 감성과의 관계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는 정치 사회적으로 소리를 통해 백성의 감성 혹은 마음의 상태를 읽어낼 수 있으며, 반대로 통치자는 소리를 통해 백성을 교화할 수 있다는 효용론으로 전개되었다. 곧, 외부의 자극에 의해 인간의 감성의 선악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천(天) 혹은 선왕으로부터 비롯된 덕을 통한 치세를 함으로써 조화와 질서가 있는 국가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리를 통한 이상 국가 실현의 주장 이외에 『악기』에서 주목할 내용은 유형화된 소리와 그 소리로써 발생된 감성의 유형이다. <악언>에서는 소리에 따라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를 사우, 강락, 강의, 숙경, 자애, 음난(思憂 康樂 剛毅 肅敬 慈愛 淫亂)의 6가지 유형으로써 설명하고 있다. 사우는 서글퍼 그리워하는 마음, 혹은 서글퍼 그럽고 시름겨운 마음이고, 강락은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이며, 강의는 굳세고 강인한 마음, 숙경은 정숙하고 공경하는 마음, 자애는 인자하고 사랑하는 마음, 음난은 음일하고 어지러운 마음을 뜻한다. 각각의 마음은 각각의 다른 소리 자극에 의해 불러일으켜진 것이다. 소리 자극에 따라 대응되는 감성의 유형에 대한 설명은 <악본(樂本)>에도 나타나 있다. <악언>에서는 소리가 사람을 감동시켜 인심(人心)이 그에 반응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면, <악본>에서는 각각의 인심으로 말미암아 특정의 소리가 생겨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악(樂)은 음(音) 이것을 말미암아 발생하며 그 근본은 인심이 외물에 느낌을 받는데 있다. 그래서 서러운 마음을 느낄 때 그 성은 불안 초조하며 쉽게 쇠약해지고, 즐거운 마음을 느낄 때 그 성은 남김없이 터지며 느긋하고, 기쁜 마음을 느낄 때 그 성은 한껏 피어오르며 퍼져가고 성난 마음을 느낄 때 그 성은 거칠고 사납고, 공경하는 마음을 느낄 때 그 성은 곧바로 반듯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때 그 성은 온화하며 부드럽다. 이 여섯 가지는 본성이 아니라 인심이 외물에 느낌을 받은 뒤에 움직인 것이다.3)(김승룡, 2002)

2) 夫民有血氣心知性 而無哀樂喜怒之常 應感起物而動 然後心術形焉 是故志微 嚙殺之音作 而民思憂 擘譜 慢易 繁文 簡節之音作 而民康樂 粗厲 猛起 奮末 廣賁之音作 而民剛毅 廉直 勁正 莊誠之音作 而民肅敬 寬裕 肉好 順性 和動之音作 而民慈愛 流辟 邪散 狄成 滌濫之音作 而民淫亂

3) 樂者 音之所由生也 其本在人心之感於物也 是故其哀心感者 其聲唯以殺 其樂心感者 其聲唯以緩 其喜心感者 其聲發以散 其怒心感者 其聲粗以厲 其敬心感者 其聲直以廉 其愛心感者 其聲和以柔 六者非性也 感於物而後動

<악본>에서도 소리와 감성은 특정한 대응 관계로써 설명되고 있다. <악본>에서 밝힌 소리와 관련된 여섯 가지의 마음은 애심, 락심, 희심, 노심, 경심, 애심(哀心, 樂心, 喜心, 怒心, 敬心, 愛心)이다. 이러한 여섯 가지 마음에서 비롯하여 소리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악언>과 <악본>에서 보인 서로 대응하고 있는 소리와 감성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악본과 악언에 나타난 서로 대응되는 소리와 감성

악본(樂本)		악언(樂言)	
감성	소리	소리	감성
애심 (哀心)	초이쇄 (嗻以殺)	지미 초쇄 (志微 嗻殺)	사우 (思憂)
락심 (樂心)	탄이완 (攄以緩)	탄해 만이 번문 간절(攄諧 慢易 繁文 簡節)	강락 (康樂)
노심 (怒心)	조이려 (粗以厲)	조려 멩기 분말 광분(粗厲 猛起 奮末 廣賁)	강의 (剛毅)
경심 (敬心)	직이염 (直以廉)	염직 경정 장성 (廉直 勁正 莊誠)	숙경 (肅敬)
애심 (愛心)	화이유 (和以柔)	관유 육호 순성 화동(寬裕 肉好 順性 和動)	자애 (慈愛)
희심 (喜心)	발이산 (發以散)	유벽 사산 적성 척람(流辟 邪散 狄成 滌濫)	음난 (淫亂)

<악본>과 <악기>에서 밝힌 여섯으로 유형화된 감성은 특히 소리라는 자극에 의해 촉발된 것이거나 반대로 소리를 유발한 것이다. 초(嗻)와 쇠(殺)한 소리와 관계되는 감성은 애(哀)한 마음과 서글퍼 그리워하는 사우(思憂)의 마음이다. 초는 불안 조급함, 메말라 윤기없는 것, 급함을 뜻한다. 쇠는 차츰 약해지는 것, 줄어들어 성하지 않은 것, 미세한 것이다. 그러므로 초쇄한 소리는 메마르고 급하고 미세하고 가느다란 소리를 의미한다. ‘마음이 원하는 바를 잃어버린 것’을 애한 감성 혹은 서글퍼 그리워하는 마음이라고 할 때 이러한 감성 상태는 바로 초쇄한 소리로부터 자극된 것이며, 초쇄한 소리로 표현되는 것이다.

탄(攄)하고 완(緩)한 소리와 관련이 있는 감성은 락(樂)이다. 탄은 넉넉하고 여유롭고 느긋하다는 뜻이고, 완은 완만하여 다급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탄완한 소리는 넉넉하고, 느긋하고, 여유로운 소리이다. 해(諧)는 화해롭다, 만이(慢易)는 성글고 간략하다, 번(繁)은 넉넉하다, 간절(簡節)은 적고 평탄하다는 의미이다.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은 상태를 ‘락’이라고 할 때 ‘락’한 감성은 넉넉하고, 완만하고 느긋하고, 성글어 간략하고, 평탄하고, 화해로운 소리와 관계가 깊다.

반면 조(粗)하고 려(厲)한 소리는 노(怒)에서 비롯된 것으로, 굳세고 강인한 강의한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조려는 거칠고 투박하고 거센 것이며, 소리가 높고 다급한 것이다. 멩(猛)은 위세가 대단한 것으로, 멩기(猛起)는 대단한 위세로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분(奮)은 빠르고 거세다는 의미로 분말(奮末)은 빠르고 거세게 끝맺는다는 뜻이다. 광분(廣賁)은 소리가 넓고 크며 성냄을 말한다. 노한 마음에서 거칠고 사납고 높고 다급한 소리가 비롯되며, 이러한 소리를 통해서 굳세고 강인한 마음이 일으켜 진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단한 위세로 시작하여 빠르게 끝맺는 소리, 크고 넓은 성난 소리 역시 강인한 마음이 생겨나게 한다.

염직(廉直)한 소리는 경심(敬心)에서 나와서 숙경(肅敬)한 마음을 일으키는 소리이다. 염은 각저 반듯하다는 의미이고, 직은 비뚤지 않고, 꾸불꾸불하지 않는 뜻이다. 경(勁)은 소리가 나오되 꺾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꾸불거리거나 꺾이지 않는 이러한 소리는 공경한 마음과 관련이 깊은 소리이다.

화(和)와 유(柔), 육호(肉好)의 소리는 애심(愛心)과 자애의 마음과 관련이 있다. 화는 어그러지지 않고 고르다, 유는 순수하고 부드럽다는 의미이다. 육은 살찌다, 윤택하다는 뜻으로 육호는 원만하고 윤택하다는 말이다. 화동(和動)은 화해롭게 움직인다는 뜻이다. 어그러지지 않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소리는 인자하고 사랑하는 애한 감성과 관계가 있다.

발(發)하고 산(散)한 소리는 희심(喜心)과 관련이 깊으며, 음난한 마음을 일으킨다. 발은 남김이 없는 것, 산은 베풀어 쌓아두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유벽(流辟)은 여음을 길게 끄는 소리이다. 적성(狄成)은 악의 한 곡조가 끝날 때까지 가락이 길어진 것으로써 지나치게 긴 소리로 해석되거나 빠르고 경박한 소리로 해석되기도 한다. 척람(滌濫)에서 척은 빠르게 오고 가는 것, 램은 넘어서서 어긋나다는 뜻으로 척람은 소리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빠르게 끝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사산(邪散)은 어긋나서 치우쳐서 올바르지 않고 산란함을 뜻한다. 락(樂)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즐거움을 뜻한다면, 희(喜)는 한순간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다. 발(發)하고 산(散)한 소리는 희와 관계되는 소리이다. 이밖에 지나치게 길게 이끌어 내는 소리나 빠르게 이끌어내고 끝을 맺는 소리, 치우쳐서 산란한 소리 또한 희와 관련이 있는 소리로 음난한 마음을 이끌어 내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다. 희는 본래 악(惡)의 속성을 지닌 감성은 아니지만 기뻐하되 절제가 없으면 음난하게

된다는 것이다(김승룡, 2002).

유가의 이론에서 일반적으로 정(情)의 분류를 희노애락애구욕(喜怒哀樂愛懼慾)이나 희노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慾)의 칠정으로 구분한 것(박영목, 2005)과 비교해 볼 때 소리에 대응되는 감성 유형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소리 자극으로 인한 감성의 경우 공경하는 마음(敬)을 포함하고 두려운 마음(懼)이나 미워하는 마음(惡), 욕구(慾) 등의 감성은 제외되어 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오감의 자극에 대한 감성 표현은 서로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감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좋다’, ‘나쁘다’와 같이 어느 감각이나 적용되는 감성형용사도 있지만, ‘맛있다’, ‘시끄럽다’와 같이 특정 감각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감성형용사가 있다. 이는 자극체의 속성에 따라 감성 작용이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감성 유형을 구분함에 있어서 자극체의 속성을 염두에 둘 때 보다 실상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악기』에서 보인 소리라는 특정 자극에 맞춰 달리 유형화된 감성은 감성 유형을 구분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있다.

2.2. 혜강의 성무애락(聲無哀樂)의 관점에 나타난 소리의 본질

혜강4)(박낙규, 1993)은 소리가 인심에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라는 악기에서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소리는 소리 자체일 뿐이지 마음의 형(形)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의 슬픔과 기쁨 마음이 소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은 소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던 감성이 소리라는 자극으로 인해 밖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곧 소리는 애락의 감성을 내재하고 있는 감성체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슬픈 감정이 마음속에 쌓였다가 그것이 조화로운 소리를 만나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는데, 조화로운 소리에는 어떠한 내용도 들어있지 않으므로 슬픈 마음이 주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슬픈 감정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이에 따라 아무런 내용도 없는 화성(和聲)에 의해, 거기서 느끼는 것은 오직 슬픔일 뿐

4) 혜강은 죽림칠현의 한 사람으로 잘 알려진 인물로 그의 대표작인 『養生論』과 『聲無哀樂論』은 도가 사상에 기본하고 있다.

이다. 그러니 만 가지로 나는 서로 다른 소리가 스스로 그러한 것임을 어찌 모르겠는가? (중략)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사랑스러움, 미움, 부끄러움, 두려움 이 여덟 가지는 못 백성이 사물을 접하고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것들은 각기 구별되는 범주가 있어 서로 섞일 수 없다. 대저 맛은 쓰거나 달다는 것으로 명칭을 삼는다. 이제 어떤 이는 푹푹하여 마음에서 사랑하고 또 어떤 이는 어리석어 감정에서 미워하는 경우에 원래 사랑스러움과 미움은 마땅히 나에게 속한 것이고 푹푹함과 어리석음은 상대방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를 사랑스런 사람이라고 하고 내가 미워한다고 해서 그를 원래 미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가령 어떤 음식을 맛보고 기쁘다면 그것을 기쁜 맛이라고 하고 어떤 음식을 맛보고 화가 난다면 그것을 화난 맛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로 미루어 보건대 밖과 안은 서로 다른 작용이 있고 주관과 객관에는 서로 다른 명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성음은 마땅히 자연적인 선악을 위주로 하는 범주이니 애락의 감정과는 무관하고 또 애락은 당연히 감정이 움직인 뒤에 밖으로 표현되어 나온 것이니 성음과는 무관하다.5)(혜강, 한홍섭 옮김, 2006)

혜강은 소리를 포함한 외물의 자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성을 ‘희노애락애증참구(喜怒哀樂愛憎慙懼)’의 여덟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는 태평어람의 ‘喜怒哀樂愛惡欲懼 人之情也’에 근거한 것(혜강, 한홍섭 옮김, 2006)으로 『예기』의 희노애락애오욕의 칠정과는 차이를 둔다. 또한 『악기』에서 언급한 소리의 자극과 관련된 감성인 애심, 락심, 희심, 노심, 경심, 애심(哀心, 樂心, 喜心, 怒心, 敬心, 愛心)과도 차이를 둔다. 혜강이 논의한 여덟 가지의 감성은 희노애락에 더하여 애심, 오심, 참심, 구심을 말하고 있다. 『악기』에서의 소리에 반응하는 감성과 비교할 때 미움, 부끄러움, 두려움 등의 마음의 유형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경하는 마음은 제외되어 있다. 칠정과 비교할 때에도 혜강의 감성 유형에는 부끄럽다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

혜강은 희노애락애증참구의 여덟 가지의 감성 유형

5) 夫哀藏於內 遇和聲而后發 和聲無常而哀心有主 夫以有主之哀心 因乎無常之和聲而后發 其所覺悟 唯哀而已 豈不知后萬不同 而使其子已哉 (중략) 夫喜怒哀樂愛憎慙懼 凡此八者 生民所以接物傳情 區別有屬 而不可溢者也 夫味以甘苦爲稱 今以甲賢而心愛 以乙愚而情憎 則愛憎宣屬我而賢愚宣彼也 可以我愛而謂之愛人 我憎則謂之憎人 所喜則謂之喜味 所怒則謂之怒味哉 由此言之 則外內殊用 彼我異名 聲音自當以善惡爲主 則無關於哀樂 哀樂自當以情感而后發 則無係于聲音

들은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써 섞이거나 혼동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특히 내적 자질로써의 감성은 외계의 객관적 성질의 영역에 속해 있는 소리와는 결코 서로 혼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혜강은 음식의 속성이 희노애락애증참구의 감정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쁘다’, ‘화나다’와 같이 감성을 나타내는 명(名)으로써 규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고 소리도 또한 음식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다.

혜강 스스로 강조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논의를 통해 감성 작용에 있어서의 주관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평가를 구분해야 함을 읽어낼 수 있다. 감성 주체로서의 인간은 주관적인 감성의 규정과 외부 자극에 대한 감성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구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간은 현재 자신의 상태가 희노애락애증참구 중 어디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소리와 같은 외부 자극에 대해 좋다, 나쁘다. 아름답다를 평가하여 표현할 수 있다. 전자를 주관적인 감성의 규정행위라고 한다면 후자는 외부 자극에 대한 감성 평가의 의미를 지닌다. ‘주관적인 감정행위를 표현하는 언어’와 ‘자극에 대한 감성 평가에 대한 표현’에는 각각 적합한 명(名)이 있는데, 객관적 외물로써의 음식의 맛을 보고 기쁜 맛, 화난 맛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기쁘다’, ‘화나다’의 표현이 음식에 대한 감성 평가를 나타내는 명으로써 적절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앞서 말한 감성평가의 차원이라면 언어사회학적 동의가 이루어진다는 전제 아래 음식에 대한 ‘기쁘다’, ‘화나다’의 평가는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

혜강은 감성의 속성과 무관한 객관적 외물로써의 소리의 성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 소리와 음은 모두 간단함과 번잡함, 높음과 낮음, 듣기 좋음과 듣기 싫음으로 구분되고 사람의 정서는 조급과 차분, 집중과 분산으로 반응한다. 비유컨대 화려한 도시를 구경하는 경우는 눈이 어지럽고 정서가 산만해지지만 섬세한 악곡을 감상하면 곧 심사가 가라앉고 용모가 단정해지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것은 성음의 구분이 오직 느낌과 빠름에만 있고 소리를 들을 때의 정서의 반응은 단지 조급과 차분에만 있을 뿐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중략) 사람은 조급하고 차분하게 만드는 것은 소리의 효능이고, 애락은 정감의 기물어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즉 소리에 의해 조급과 차분의 반응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 근거하여 애락이 모두 성음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성음에는 비록 격렬함과 고요함의 변화는 있으나 그 안에는 각기 일정한 조화가 있어서 그 조화로움이 주는 감동으로 인하여 마음속의 정감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6(혜강, 한흥섭 옮김, 2006)

혜강이 언급한 소리의 속성은 간단함과 번잡함[單復], 높음과 낮음[高埤], 듣기 좋음과 듣기 싫음[善惡]이다. 그리고 더하여 소리는 느림과 빠름[舒疾], 크거나 조용함[猛靜] 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반응하는 감성은 조급과 차분[躁靜], 집중과 분산[專散]으로, 소리에 의해 나타나는 반응은 희노애락애증참구가 아니라 조정[躁靜]과 전산[專散]이라는 것이다.

혜강은 소리가 인간의 심성에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라는 『악기』의 주장에는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소리 자극에 반응하는 인간의 감성 작용에 대해서는 긍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리의 효능을 바탕으로 악기와 유사한 소리의 정치사회적 효용론을 펼치기도 한다.

그런데, 혜강이 소리의 속성으로서 언급한 맹정(猛靜), 단복(單復), 서질(舒疾), 고비(高埤), 선악(善惡)은 크기(loudness), 세밀성(sharpness), 피치(pitch), 거칠기(roughness), 요동강도(fluctuation strength), 쾌적감(pleasantness) 등의 심리음향학적 변수(최민주, 1997)에 대응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할 수 있다. loudness는 소리의 세기의 정도에 대해, sharpness는 소리가 날카롭거나 무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sharpness는 저주파와 고주파 사이의 균형을 나타내는데, 고주파 영역이 지배적인 소리일수록 그 값은 증가한다. pitch는 음고라고도 하는데, 소리의 진동수의 차이에 의해 음의 높낮이가 달리 느껴지는 것을 말한다. roughness와 fluctuation strength는 떨림이나 윙윙대는 거친 소리와 요동현상이 감지되는 척도이다. pleasantness는 ‘쾌적한’ 혹은 ‘불쾌함’으로 표현되는 소리에 대한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평가이다. 거칠게 논의한다면 맹정은 소리 크기의 대소를 나타낸 개념으로 loudness에, 단복과 서질은 소리의 질과 빠름기에 대한 속성으로써 fluctuation이나 roughness에, 고비

6) 然皆以單復高埤善惡爲體 而人情以躁靜專散爲應 譬猶游觀於都肆 則目濫而情放 留察於曲度 則思靜而容端 此爲聲音之體盡於舒疾 情之應聲亦止於躁靜耳 (중략) 躁靜者 聲之功也 哀樂者 情之主也 不可見聲有躁靜之應 因謂哀樂皆由聲音也 且聲音雖有猛靜 猛靜各有一和 和之所感 莫不自發

는 소리의 고저와 관련된 개념으로 pitch 혹은 sharpness 에, 선악은 소리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써 pleasantness에 관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3. 소리는 천기에서 비롯한 것인가?

3.1. 『악학궤범』에 나타난 조선 유학자들의 소리 인식

『악학궤범(樂學軌範)』은 성종 24년 성현, 유자광, 신말평, 박근, 김복근 등이 성종의 명을 받아 편찬한 조선의 음악이론 책이다. 조선 건국 이후 질서와 제도의 명문화 프로젝트로써 소리와 음, 악에 주목한 책이 바로 『악학궤범』이다. 때문에 공자의 유가적 악론에 궤를 같이하여 소리와 감성의 관계를 통한 사회정치적 교화와 효용론을 그 중심에 두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악학궤범』에서의 소리와 감성에 대한 인식은 『악기』의 이론과 연관이 많다.

악이란 하늘에서 나와서 사람에게 붙인 것이요 허에서 발하여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여 혈액을 뛰게 하고 정신을 유통케 하는 것이다. 느낀 바가 같지 않음에 따라 소리도 같지 않아서 기쁜 마음을 느끼면 그 소리가 날려 흩어지고 노한 마음을 느끼면 그 소리가 거세고 슬픈 마음을 느끼면 그 소리가 애처롭고 즐거운 마음을 느끼면 그 소리가 느긋하게 되는 것이니 그 같지 않은 소리를 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은 임금의 인도 여하에 달렸다.7)(성현, 樂學軌範 序)

『악학궤범』에서는 조화와 질서를 지향하는 정치를 위한 악(樂)의 효용성을 기저에 두고, 음악의 이론, 음률, 악곡의 진행과정 및 악기의 설명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특히, 삼국시대 이후로 전해오는 악곡 및 악기를 정리하고 새롭게 향악을 창작하는 노력을 보이는 등 조선의 유학자들은 조선의 음과 소리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전통의 소리와 음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창조하는 데 힘을 기울였음을 읽을 수 있다. 이는 조선 초 유학자들의 소리와 감성의 관

계에 대한 의식이 지역적, 민족적, 역사적, 언어적 특성을 염두에 두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예시한 성현의 <악학궤범 서>를 통해서 『악학궤범』은 『악기』를 기본으로 한 유가적 악론과 음률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성현 개인의 것이 아니라 임금을 비롯한 당시 조선 유학자들의 소리에 대한 생각이 이에 준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악학궤범 서>에 예시된 ‘기쁜 마음을 느끼면 그 소리가 날려 흩어지고 노한 마음을 느끼면 그 소리가 거세고 슬픈 마음을 느끼면 그 소리가 애처롭고 즐거운 마음을 느끼면 그 소리가 느긋하게 되는 것’은 『악기』를 통해 살펴본 소리와 감성 유형이다. 이와 같은 『악기』에 나타난 소리와 감성의 관계에 대한 이론이 당시 조선 유학자들의 보편적인 소리와 감성에 대한 생각이었다고 할 수 있다.

3.2. 천기론(天機論)에서의 소리와 감성

조선 중기 유학자들은 소리와 감성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면서 천기에 주목한다. ‘천기’에 대한 깨달음과 ‘천기’로부터 우리나라는 자연스러운 표현을 중시한 ‘천기론’은 조선 중기 이후 시와 가악론을 비롯하여 서(書), 화(畫), 건축 등 다양한 문화 현상을 설명하는데 활용되었다(정요일, 2008). 조선의 유학자들은 성정과 천기를 이해하는 입장에 따라 시와 음악에 대해서도 다른 이론을 전개(김홍규, 1982; 정요일, 1990)하였는데, 천기론은 참된 성정에서 우리나라는 것이야말로 좋은 시와 음악이며, 천기가 자연스럽게 발동하는데서 이루어진 작품이야말로 좋은 작품이라고 주장한 미학 이론이다.

천기는 천명(天命), 천의(天意), 천도(天道), 천리(天理) 등의 용어로 대체되기도 하는데(정요일, 2008), ‘천지조화의 심오한 비밀’, ‘육심에 얽매이기 이전의 자연 그대로의 마음상태’, ‘도덕적 차원을 배제한 자연 상태에서 저절로 흥기되는 진정성’ 등으로 정의하거나(정시열, 2001), ‘천물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자유롭고, 균등한 그리고 순수한 마음과 몸 또는 그것의 조화’(김영옥, 2003)로 이해할 수 있다. ‘천(天)’의 의미에 주목할 때 천기는 리(理)와 성(性)의 개념과 일맥상통하여 이성의 개념에 속하지만 ‘마음’의 의미에 주목할 때 천기는 기(氣), 정(情), 인심(人心)과 일맥상통하여 감성의 개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감

7) 樂也者出於天二寓於人 發於虛而成於自然 所以使人心感 而動盪血脉 流通精神也 因所感之不同 而聲亦不同 其喜心感者發以散 怒心感者粗以厲 哀心感者嘯以殺 樂心感者嘯以緩 能合其聲之不同而一之者 在君上導之如何耳

성 반응이 생애적인 것 뿐 아니라 학습 경험된 개인의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이구형, 1998)는 점에서 천기는 감성 작용과 연관이 깊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김창협은 성정과 천기에 바탕을 둔 시론을 피력하여 18세기 이후 조선의 시론에 큰 영향을 미친다.(안대회, 2000) 그는 『농암집(農巖集)』 「잡지(雜識)」의 <외편(外便)>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시는 시정(性情)이 발로된 것이요, 천기(天機)가 움직여 나온 것이다. 당의 시인은 이 점을 터득하였기 때문에 초당(初唐), 성당(盛唐), 중당(中唐), 만당(晚唐)을 따질 것이 없이 대체로 시가 자연스럽다. 지금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오로지 성색(聲色)을 본뜨고 기격(氣格)에 힘쓰므로써 옛사람의 발꿈치나 따르고자 한다. 그러면 소리나 모양은 옛사람과 비슷할지 몰라도 신정(神情)과 흥회(興會)는 어느 것도 비슷하지 않다.8)(안대회, 2000)

김창협은 격조, 율격 등의 시의 형식적 측면만을 주목하여 인간의 성정과 작가의 꾸밈없는 감성이 드러나지 않은 시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보인다. 그가 추구하는 최고의 시의 경지는 자연의 시이다(안대회, 2000). 신정(神情)과 흥회(興會)가 담긴 시를 그가 말한 ‘근자연(近自然)’한 시와 가깝다고 할 때 성색(聲色)과 기격(氣格)에 몰두한 시는 천기의 움직임과는 관련이 없는, 성정이 자연스럽게 표출되지 못한 시이다. 이 때 천기의 움직임은 바로 꾸밈과 거짓이라는 인위적 행위와는 거리가 있는 마음의 상태로부터의 움직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홍대용의 <대동풍요 서>와 마약노초의 <청구영언 후발>에서의 천기에 대한 논의는 조선 유학자들의 소리와 감성의 관계에 관한 사고를 읽어내는데 도움이 된다(홍대용, 대동풍요서(大東風謠序)).

노래[歌]란 그 정(情)을 말하는 것이다. 정(情)이 말에 움직이고 말이 글에 이루어지는 것을 노래라 한다. 교졸(巧拙)을 버리고 선악(善惡)을 잊으며 자연을 따르고 천기(天機)를 발하는 것이 노래의 우수한 것이다.9)

시는 시경 이후에 날로 옛날과 멀어져서 한 위 이후의 시 배우는 자는 한갓 용사(用事)와 철사(綴辭)에 재빠른 것을 박식하다하고 경치와 물색 꾸미는 것을 공교롭다 했으며 심지어 성병(聲病)을 따지고 자구를 다듬는 법이 나타나자 성정(性情)은 숨어버리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내려와서는 그 폐단이 더욱 심하여 오직 노래 한 길만이 풍인(風人)의 남긴 뜻에 차차 가까워져 정을 이끌고 인연을 펴내니 이어로 읊조리고 노래하는 사이에 유연히 사람을 감동시킨다. 민간의 노래 소리에 이르면 곡조는 비록 아름답고 세련되지 못하나 무릇 그 기뻐 즐기며 원망하고 탄식하고 미쳐 날뛰며 거칠게 구는 모습과 태도는 각각 자연의 진기에서 나온 것이다.10)(마약노초, 청구영언후발(靑丘永言後跋))

홍대용은 노래는 정에서 싹터 나온다고 하고 좋은 노래는 교졸을 버리고, 선악을 잊으며, 자연에 따르고, 천기를 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교졸은 김창협이 말한 바 성색을 본뜨고 기격에 힘쓰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감성의 작용을 방해하는 인위적인 꾸밈을 경계하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악(惡)뿐 아니라 선(善)도 잊으라고 하여 선악에 집착하는 행위조차도 삼가 하도록 하였다.

이정섭으로 밝혀진 마약노초(김영옥, 2003) 또한 자연의 진기(眞機)에서 발현된 노래의 가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청구영언 후발>에 나타난 진기에서 비롯된 유일원탄창광조망(愉佚怨歎猖狂粗莽)은 노랫소리의 형(形)을 언급하면서 더불어 노래 자극에서 비롯된 감성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유(愉)는 부드러운 소리이고 일(佚)은 편안한 소리로 유일은 즐거운 마음의 상태와 통해 있다. 원(怨)은 원망하는 소리이고 탄(歎)은 한숨 쉬듯 탄식하는 소리이다. 원망은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과 관계가 있다. 창(猖)은 어지러운 소리, 미쳐 날뛰는 소리이고, 광(狂)은 큰소리이다. 창과 광은 기뻐 날뛰는 마음과 통하기도 하고 화나고 분한 마음과 통하기도 한다. 조(粗)는 거칠고 투박한 소리로 화난 마음과 관계된다고 할 수 있다.

감성이 내재된 소리 표현은 자극의 속성에 준한 표현에 비하여 소리자극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가는 곡조의 점점 줄어드는 힘없

8) 詩者 性情之發 而天機之動也 唐人詩有得於此 故無論初盛中晚 大抵皆近自然 今不知此 而專欲摸象聲色 黽勉氣格 以追踵古人 則其聲音面貌雖或髣髴 而神情興會都不相似

9) 歌者言其情也 情動於言 言成於文謂之歌 捨巧拙忘善惡 依乎自然 發乎天機 歌之善也

10) 詩自風雅以降 日與背驚 而漢魏以後 學詩者 徒馳騁事辭 以爲博 藻繪景物以爲工 甚至於較聲病鍊字句之法出 而情性隱矣 下逮吾東 其弊滋甚 獨有歌謠一路 差近風人之遺旨 率情而發 緣以俚語 吟諷之間 油然感人 至於里巷謳歎之音 腔調雖不雅馴 凡其愉佚怨歎猖狂粗莽之情狀態色 各出於自然之眞機

는 소리일 경우 탄하는 소리라 표현하고, 빠른 곡조의 음의 높낮이가 급변하는 소리의 경우 미쳐 날뛰는 소리라 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천기론을 주장한 이정섭은 감성이 내재된 표현을 통해 소리의 형을 나타냄으로써 마음으로부터 발현된 소리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일원탄창광조망(愉佚怨歎猖狂粗莽)의 표현은 감성이 내재된 표현이 외적 자극의 모양[態] 및 그에 대한 감성 반응을 쉽게 인지하는데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하겠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악기와 해강의 성무애락론, 조선시대의 악학계범과 천기론을 주장한 일련의 학자들의 이론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서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의 사고에 전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소리와 감성의 속성 및 그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동양인의 사고에 포함되어 있는 소리와 감성의 관계에 대한 의식의 일면을 파악하고 감성과 소리의 관계 고리를 살펴볼 수 있었다.

『악기』에서 주목할 만한 소리와 감성에 대한 견해는 소리가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관점으로 마음과 소리의 관계를 통해 백성을 교화하고 질서를 구축할 있다는 효용론이다. 또한 소리 자극이 애심, 락심, 희심, 노심, 경심, 애심(哀心, 樂心, 喜心, 怒心, 敬心, 愛心)의 여섯 가지 감성과 상호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이론은 현대적 감성분류에 응용 가능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해강은 소리에 대해 객관적 외물일 뿐이지 마음의 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해강은 더불어 소리가 감성체가 아니라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물리적 속성을 지닌 자극체로서의 소리의 특징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그의 논의에서 밝힌 맹정(猛靜), 단복(單複), 서질(舒疾), 고비(高埤), 선악(善惡)의 소리의 속성은 크기(loudness), 세밀성(sharpness), 피치(pitch), 거칠기(roughness), 요동강도(fluctuation strength), 쾌적감(pleasantness) 등의 심리음향학적 변수와 대응되는 개념으로써 매우 흥미롭다 할 수 있다. 조선의 경우 『악학계범』을 통해서 소리와 감성에 대한 당시 유학자들의 사고가 『악기』를 기본으로 한 유가적 악론과 음률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 중기 미학의 한 이론으로써의 천기론을 통해서 천기를 통해 발현된

소리와 감성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청구영언 후발>에 나타난 진기에서 비롯한 유일원탄창광조망(愉佚怨歎猖狂粗莽)은 감성이 내재된 노랫소리의 형(形)을 언급한 표현으로, 소리에 대한 개인의 감성 반응을 인지하는데 유용한 표현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양적 사고 내에서의 소리와 감성 유형에 주목하고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서양학자들의 감성유형분류와 비교, 자극체에 따른 감성표현 분석 등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지역 및 자극 환경에 적합화된, 유효한 감성유형분류 모델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승룡 편역주 (2002). *樂記集釋*, 서울: 청계출판사, 75, 407, 88, 88-97 · 407-426.
- 김영옥 (2003). 天機論의 音樂美學的 意義, *韓國音樂史學報* 30, 한국음악사학회, 205-230.
- 김홍규 (1982). *조선후기의 시경론과 시의식*, 서울: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40-48.
- 마약노초, 열상고전연구회편 (1992). 靑丘永言 後跋, *韓國의 序跋*, 서울: 바른글방, 270-272.
- 박낙규 (1992). 고대중국의 유가와 도가 악론의 기본관점(상), *낭만음악* 4(2), 낭만음악사, 69-93.
- 박낙규 (1993). 고대중국의 유가와 도가 악론의 기본관점(중), *낭만음악* 5(2), 낭만음악사, 97-120.
- 박영목 (2005). 유학에서 나타나는 심성구조 및 특성, *감성과학* 8(3), 한국감성과학회, 241-251.
- 성현, 민족문화추진회 (1989). *樂學軌範 序*, *악학계범*, 서울: 민문고, 17-22.
- 안대회 (2000). *조선후기시화사*, 소명출판, 126-137.
- 이구형 (1998). 감성과 감정의 이해를 통한 감성의 체계적 측정평가, *감성과학* 1(1), 한국감성과학회, 117- 120.
- 이태일 (2007). 감성측정을 위한 감성 포지셔닝 시각화 도구 개발, *인문과학* 15, 홍익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88.
- 정시열 (2001). 農巖 金昌協 時論考, *韓國古典研究* 7, 한국고전문학회, 170-171.
- 정요일 (1990). *한문학비평론*, 서울: 집문당, 80.
- 정요일 (2008). 天機의 概念과 天機論의 意義, *漢文學報* 19, 우리한문학회, 243-260.
- 최민주 (1997). 소리의 감성적인 측면과 활용, *전자공*

학회지, 24(11). 대한전자공학회, 1317-1332.

혜강, 한홍섭 옮김 (2006), *혜강집*, 서울: 소명출판, 240-241, 241, 271-273.

홍대용, 대동풍요서(大東風謠序), 내집(內集), 권3(卷三), *담헌서*(湛軒書).

원고접수 : 10.02.23

수정접수 : 10.03.11

게재확정 : 10.03.14